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2018.8.5.(토) ~ 2018.8.25.(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랑가라 컬리지의 위치는 제가 느끼기에는 벤쿠버에서 갈만한 곳들과 거의 다 적당한 거리에 있는 곳에 위치한 것 같습니다. 대학 근처에 버스정류장과 역이 매우 가까워서 위치가 좋습니다. 규모는 순천향대에서 기숙사 있는 부분 면적 뿐 크기와 비슷합니다. 시설은 좋습니다. 낯다고 느껴진 건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평화롭고 깔끔합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수업의 주제는 나라별 문화차이, 프레젠테이션 방법, 간단한 영어 표현 등입니다. 선생님이 주제와 부가 설명 간단히 하시고 조를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발표하는 식으로 수업합니다. 학교 가는 첫 날에 리스닝 테스트를 보고 분반합니다. 과제는 반마다 좀 다른데 저희 반은 매일 저널 쓰고 일주일에 한 번 검사했습니다. 그 외에 학교에서 나눠주는 책 몇 장 풀기랑 학교에서 여행 갈 때마다 종이 나눠주는 거 채우는 과제 있습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디스커버 벤쿠버는 벤쿠버를 대표하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투어하는 것이고 준비물, 추가비용 없습니다. 아쿠아리움, 뮤지엄도 가고 준비물, 추가비용 없습니다. 휘슬러 트립은 폭포와 산에 가는데 편한 복장하고 고도 높은 지역은 추우니까 후드집업 챙기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래바람 불어서 하드렌즈는 비추입니다.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카약킹은 수건, 모자, 선크림 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햇빛이 매우 뜨겁고 다리부분만 살짝 젖습니다. 여분 옷 들고 오라고 하는데 보통 안 갈아입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벤쿠버 여름 날씨는 매우 좋습니다. 대체로 한국의 가을 날씨와 비슷합니다. 첫째 주는 낮에는 더웠습니다. 27도 정도였습니다. 첫째 주는 한국에서 여름에 입고 다니던 대로 입고, 둘째 주는 여름 가을 섞은 정도로 입었고, 셋째 주는 가을처럼 입었습니다. 근데 학교 교실이 춥고 아침, 밤이 춥기 때문에 삼주 동안 항상 가디건은 갖고 다녔습니다. 비는 한 번 왔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안전합니다. 홈리스가 있긴 한데 무시하고 지나가면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0)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제 경우에는 홈스테이 가족이 배려도 많이 해주고 친절했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고 화기애애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일부처럼 대해주셔서 규칙이나 주의 주신 것도 없었습니다. 시설도 좋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고 깨끗하고 벌레도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저 혼자 쓰고 방도 가족과 완전히 분리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방이 지하여서 그런지 좀 추워서 맨투맨에 긴바지 입고 잤는데도 쌀쌀했습니다. 미리 홈 가족과 연락해서 방이 몇 층이냐고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마다 주는 방이 지하, 1층, 2층 다양합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0) 외부식당(0)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은 엄마가 테이블에 놔두신 빵 들고 먹으면서 학교에 갔고, 점심은 싸서 테이블에 놔주셨습니다. 그거를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먹고 저녁은 보통 밖에서 먹었습니다. 한 4번 정도만 집에서 먹었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통학은 버스를 두 번 타고 가는 방법, 한 번만 타고 가는 방법 둘 다 이용했습니다. 첫 버스가 걸어서도 갈만한 거리였습니다. 총 25~30분 거리였습니다. 시내교통은 좋은데 놀다가 집에 돌아갈 때 집이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집 오는 버스는 밤에는 배차간격이 커져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858,700	출국 전 사전 납부
쇼핑	45	
여행(식비 포함)	55	
기타(약값,추가교통비,홈스테이 선물 등)	10	
합계	11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홈스테이 가족에게 미리 이메일 해서 준비물 챙기는 데 궁금한 점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집마다 제공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심은 한국에서 인터넷 주문했는데, 데이터 무제한 써서 좋았습니다. 밤에 길 잃은 적 있는데 그 때 데이터 없었으면 더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홈스테이 선물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먹을 거 김하고 라면 가져가서 줬는데 홈 가족이 이미 다 먹어본 것들이었고, 햇반도 줬는데 밥을 안 좋아하는 가족이었고, 또 술잔 가져갔는데 술을 안 먹는 가족이었습니다. 낭패 볼 수도 있으니 무난한 물건을 사셔도 좋고 선물 생각해서 그냥 홈 가족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 캐리어 최대한 비워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사오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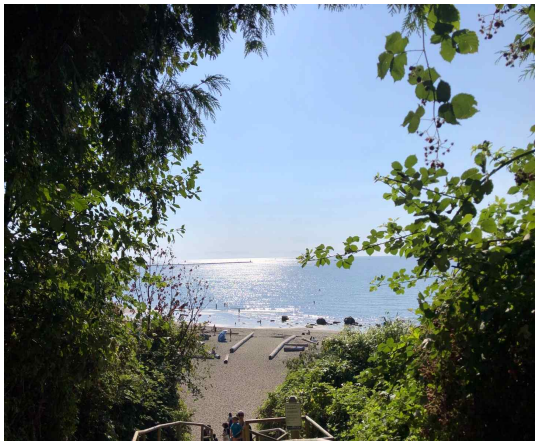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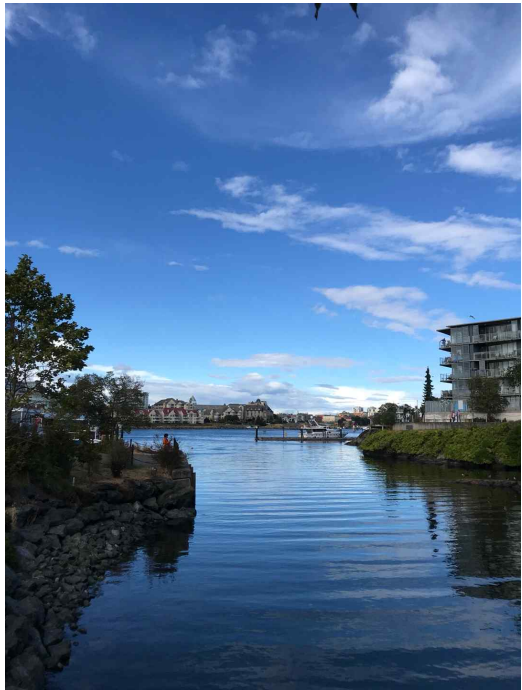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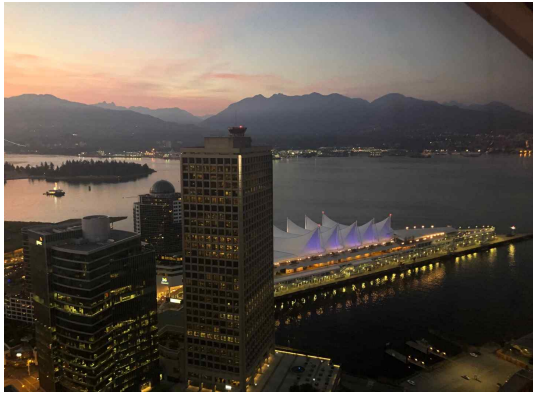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저는 덜컥대고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도착해서부터 집까지 돌아올 때까지 미리 준비하고 철저했더라면 겪지 않았을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일들이 모두 좋은 경험이 되고 지나고 나니 추억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에서 미리 생각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 정말 더 좋은 3주를 보내고 와서 행복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여유를 느끼고 문화 차이, 다양한 사람에 대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wreck beach	스탠리 파크
	
버차드 가든	빅토리아 아일랜드



밴쿠버 록아웃에서 바라 본 전경



잉글리쉬 베이